

“보육·교육 조정기능 유명무실”

윤정훈 도의원, “3~5세 누리과정 보육·교육, 교육행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해야”

윤정훈 전북도의회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는 보육·교육 조정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주장은 6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과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공동주최한 ‘돌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모색 복지정책 토론회’에서다.

윤 의원은 “전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의 균형을 맞추고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과 교육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3세에서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교육에 대해 교육행정협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촌지역 방문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진단과

인 경도인지장애와 인지저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의학·한의학 예방사업 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유형 개발과정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기결정과 선택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설계하라”고 주장했다.

또 “휴먼서비스인 사회서비스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만족도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

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그 효과가 높다”고 강조하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단일임금제 도입 등 처우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이 ‘돌봄사회의 미래’를, 이종섭 박사(전북연구원)가 ‘전북도 사회복지 현황을 통해 본 복지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등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북도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 연구회 도시재생 공간 활용 방안 논의

전주시의회 로컬라이징 연구회(회장 최서연 의원)는 전주시회혁신센터에서 ‘전주시 도시재생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정책토론회’를 6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공간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발제를 맡은 전주시 도시재생센터 소영식 센터장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도시 재생뉴딜사업 등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집중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전주 원도심을 기반으로 9도심 캠퍼스, 썬커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즐거운 도시연구소 정수경 박사는 일본 요코하마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의 공간을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며 전주시민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서연 의원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고민 없는 도시재생사업은 어떠한 음식도 담지 못하는 빈 그릇일 수 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전주시 구도심 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손피켓 들고 ‘투쟁!’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의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총파업·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열린 6일 군산시 롯데마트 앞 도로에 모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잼버리 이후 래거시 활용, 성공 개척이 관건”

김슬지 도의원,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패널 참석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6일, 전라북도와 전북도민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주최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 세션3-지방자치 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래거시 활용방안’에 패널로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이어갔다.

한명규 JIV대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3명(황지욱 교수, 백승기 박사, 조경식 세계잼버리조직위 본부장이 발제를 맡았고 김슬지 의원을 비롯한 패널 5명이 도농 간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과 잼버리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 나갔다.

김슬지 의원은 “오늘 주제인 도시와 농촌의 상생 전략과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래거시 활용방안이 아쩌면 다른 분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국 도농 간 격차를 줄일 방안 모색이라는 목적으로 본다면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는 문제”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부안 현장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로 인해 지역 활력과 경제효과를 기대하며 모든 군민이 한 뜻으로 불편한 부분도 감수하며 준비해왔다”며 “지역에서도 이런 사활을 걸고 준비에 임했던 이유는 그간 도시와 비교했을 때 기회가 적었고 그 기

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 말했다.

그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청년 스마트팜, 복합형 농산물 생산부지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이후의 래거시 활용방안 논의에는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진행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슬지 의원은 “이런 논의가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안 지역 활성화는 물론 도내 그리고 한국의 아이들에게 값진 경험을 주기 위해 준비해온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며 “프레 잼버리 없이 열리는 세계잼버리가 문제없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농생명 분야 예산 비중 더 늘려야”

도의회 예결특위,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6일 2023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4일차 심사를 진행했다.



임승식 도의원



백용근 도의원



김정기 도의원

이날 심사는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등 7개 실국에 대한 심도를 벌였고, 7일 부터는 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승식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정읍1)는 “농생명축산식품국 예산이 전북도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사업발굴 및 확대 추진으로 예산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고 비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8차산업 고도화지원 사업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에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도내 지역농협 쌀 브랜드 20개 운영은 경쟁만 과열시키고 홍보와 브랜드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장수)는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생명산업 포럼의 그 간 발굴사업 내역을 확인하며,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참여와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농산유통과 소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실적은 점검하며, 지역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향후 비닐 뿐만 아니라 유리, 에어돔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성 및 장기적 사용률이 높은 다양한 지원 방법도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부안) 농촌 현장은 여성농업인이 늘어나는 추세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비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것들을 지적하며, 향후에도 관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의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농촌활력과 소관 농촌관광 스테마 조성은 4년에 걸친 사업이나 자부담이 적고,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예산투입 규모가 크므로, 대상지 선정과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생명산업 포럼의 그 간 발굴사업 내

역을 확인하며,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참여와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농산유통과 소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실적은 점검하며, 지역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향후 비닐 뿐만 아니라 유리, 에어돔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성 및 장기적 사용률이 높은 다양한 지원 방법도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부안) 농촌 현장은 여성농업인이 늘어나는 추세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비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것들을 지적하며, 향후에도 관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의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농촌활력과 소관 농촌관광 스테마 조성은 4년에 걸친 사업이나 자부담이 적고,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예산투입 규모가 크므로, 대상지 선정과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생명산업 포럼의 그 간 발굴사업 내

역을 확인하며,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참여와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농산유통과 소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실적은 점검하며, 지역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향후 비닐 뿐만 아니라 유리, 에어돔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효율성 및 장기적 사용률이 높은 다양한 지원 방법도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은(더불어민주당 부안) 농촌 현장은 여성농업인이 늘어나는 추세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비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것들을 지적하며, 향후에도 관련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의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농촌활력과 소관 농촌관광 스테마 조성은 4년에 걸친 사업이나 자부담이 적고, 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100억원으로, 예산투입 규모가 크므로, 대상지 선정과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농생명산업 포럼의 그 간 발굴사업 내

전주을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내년 4월 5일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5일 실시하는 전주시을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12월 6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6일 현재 전국에서 국회의원재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는 전주시을 1곳으로,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주시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최대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100매 또는 표지물 착용 △말 또는 전화이용 지지호소 △예비후보

자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인후보제한자에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등록 첫날 국민통합 김경민 출마 예정자와 진보당 강성희 출마 예정자가 예비후보등록을 마쳤으며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ac.go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